



향봉 스님의 육조단경 강의 ③

◆ 교수선정(教授禪定)

“수행자의 좌선은 원래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또한 움직임도(움직이지 않음)도 말하지 않는다. 만약 마음을 본다고 말한다면 마음은 원래 허망한 것이며 허망함이 허깨비와 같은 까닭에 볼 것이 없다. 만약 깨끗함을 본다고 말한다면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함에도 허망한 생각으로 진여(眞如)가 덮인 것이므로 허망한 생각만 여의면 성품은 본래대로 깨끗하다.

자기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은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을 본다고 하면 도리어 깨끗하다고 분별하는 망상(妄念)이 생긴다. 망상은 초소가 없다. 그러므로 본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깨끗함은 모양이 없거늘, 도리어 깨끗한 모양을 세워서 이것을 공부하고 말한다면 이러한 소견을 내는 이는 자기의 본래 성품을 가로막아 도리어 깨끗함에 묶이게(淨縛) 된다.

만약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이가 사람들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면 이는 자성(自性)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자기의 몸은 움직이지 아니하나, 입만 열면 곧 남의 옳고 그름을 말하나니, 도(道)와는 어긋나 등지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보고 또는 깨끗함을 본다고 하는 것은 도리어 도(道)를 장애하는 인연이다.

이 법문 가운데 어떤 것을 좌선이라 하는가? 이 법

육조 혜능 대사는 제자들에게 ‘교수선정(教授禪定)’을 통해 어느 것이 선(禪)이고 정(定)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이라는 말은 고어(古語)에서는 생각과 모든 것을 쉬어 버린다는 뜻으로 이야기 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신수 스님이 ‘몸은 보리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 같으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과 먼지 까지 없게 하라’라는 말처럼 그대로 두고 고르고 선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고 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는 것은 불행했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만족을 느낀다면 행복을 추구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색(色), 수(受), 상(想), 행(行), 식(識)에 의해 어리이하는 어린아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定)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정(禪定)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행을 하고 마음을 닦는 사람을 길흉사도 점칠 수 있는 예지력있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도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국의 고사전에서 살펴보면 도인이라는 말은 도

육조 혜능 대사는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고 또한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것이 좌선인가? 막힘과 결림이 없는 밖으로 착함과 악함이 경계에 부딪쳐도 싫고 좋음의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음이 좌(坐)요, 안으로 성품이 맑고 고요해 움직임이 없는 것은 선(禪)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끼리 싸우게 되면 서로 양보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양보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재해무상 재법무이라고 말하지만 탁상 공론일 뿐입니다. 일체가 허망하다는 생각을 머리로부터 풀리는 것이 아닌 몸으로 실천을 해야만 선정에 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밖으로 반응을 쉬는 것이 좌요, 안으로 할림이 없는 것이 선입니다. 어떠한 것이 선정인가? 밖으로 차별심과 분별심을 여윈 것이 선이요, 안으로 고요하고 맑아 흔들림이 없는 것을 정이라 합니다.

정진함에 있어 밖의 경계에 마음이 끌려가게 되면 정이 흩어질 것이요, 차별심과 집착심을 거둬들여 마음에 어지러움이 없게 되면 다시 정에 들것입니다.

그러므로 밖으로 생각을 거둬서 선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입니다. 좌선함에 있어 마음이 고요 예만 집착해서도 안되고, 깨끗하고 맑은 데에만 집착해서도 안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데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밖으로의 경계를 차츰 쉬어 안으로의 맑음이 스스로 찾아들게 해야 합니다. 바람에 의해 구름이 스스로 빚겨 가면 단박에 태양을 보게 되니, 서둘거나 할림이 필요도 없습니다. 수행자는 나쁜 일, 좋은 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간결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닦아 나가되 안으로는 맑음과 고요함이 물결을 잠재운 바다같이 해야 합니다.

물결이 잦아든 바다에는 저절로 해인(海印)이 뚜렷하게 비치리니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임이 있고 흔들림이 없는 가운데 간절함이 움직여 스스로 지지 않는 가운데 지음이 있어 마침내 부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당시, 스님을 한 분 만났는데 그 스님에게 제가 어떻게 깨치게 됐나고 물었습니다. 그 스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한해 겨울을 어느 산에서 움막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손발이 얼고 건강상태가 안 좋아질 정도로 정진을 했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봄



육조 혜능 대사

이 되니 그 산에 고사리를 꺾기 위해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어느 아낙네가 고사를 꺾어 스님 움막에 갖다 놓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님이 자신도 모르게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아낙네가 기다려 진 것입니다. 스님은 ‘내가 진정 이르고도 구도자인가’라며 참괴심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탄을 하며 화두를 들었는데, 자신도 모르게 깨쳤다고 합니다. 깨친다는 것은 얼마나 진실로 간절한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꽃을 얻기 위해서는 간절함을 다해 단박에 열심히 불을 피워야 합니다. 쉬엄쉬엄 나무를 비벼서는 절대 불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처작주(數處作住)를 말씀 남긴 인제 스님의 계승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是非非都無關 (시시비비도부관)
山山水水任自閑 (산산수수임자한)
莫問西天安養國 (막문서천안양국)
白雲斷處有青山 (백운단처유청산)

시시비비 내 알바 아니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한가로운것을 서천의 극락세계 묻지 말거나 구름 건하면 그대로 청산인 것을

부처 중생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 <유마경>의 말씀처럼 그 자신이 그 자리에서 단박에 깨달음을 성취해 갑니다.

정리=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밖으로 분별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좌

안으로는 고요해 움직임 없는 것이 선

허망한 생각만 여의면 성품은 본래 깨끗하다

문 가운데는 일체 결림이 없어서 밖으로 모든 경계 위에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앉음(坐)이며, 안으로 본래 성품을 보아 어지럽지 않음이 선(禪)이다. 어떤 것을 선정이라 하는가? 밖으로 모양(相)을 떠남이 선(禪)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음이 정(定)이라. 가사 밖으로 모양이 있어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대로 그대로 정(定)이다. 그러나 다란 경계에 부딪침으로 말미암아 부딪치게 되면 곧 어지럽게 된다. 모양(相)을 여의고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곧 정(定)이다. 밖으로 모양(相)을 떠나는 것이 곧 선(禪)이요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곧 정(定)이다. 밖으로 선(禪)하고 안으로 정(定)함을 선정(禪定)이라 이름 한다.

<유마경>에는 ‘즉시에 활연히 깨달아 본래 마음을 도로 찾는다’고 했고, 보살계에 맡으시기를 ‘본래 근원인 자성(自性)이 청정하다’고 했다. 자기 성품이 스스로 청정함을 볼지니, 스스로 닦아 스스로 이름이 자기 성품인 법신(法身)이며, 법신 그대로 행함이 부처님의 행위이며,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름이 부처님의 도(道)이다.”

교를 숭상하는 사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도인은 선지식이라는 말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식이라는 말도 예지능력이나 모든 도에 통달했다는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선지식이라는 뜻은 누구에게나 좋은 스승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착한 벗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풀이돼 있습니다. 부처님께서서는 가사와 장삼을 입었더라도 마음을 험뎌는 자는 중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50년 동안 수행을 해서 마음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참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장 훌륭한 사람은 가장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일반사람들이 선정삼매가 굉장치 멀리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진리는 항시 우리 눈앞에 널려 있는게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가 진리를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집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선방은 구조적으로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어록에 나오는 선방이라는 것은 간절심이 들어서 응무소주 이생기심(應無所住 而生其心) 마음을 여는 것인데, 한국은 격식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Q/A 선정과 지혜는 어떤 관계입니까?

<육조단경>에서 혜능 스님은 ‘자기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은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일으켜 깨끗함을 본다고 하면 도리어 깨끗하다고 분별하는 망상이 생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성을 무엇으로 보는 것이며, 자성이 본래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이 뜻은 무엇일까요.

-잠을 자고 일어나, 문을 열고 밖을 나가게 되면 눈으로 보고, 몸으로 촉감을 느끼면서 분별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타인에게 원망도 생기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합니다. 자고 있을때는 몰랐지만, 잠에 깨어나면 모든 것에 흔들리고 할림이게 됩니다.

마음거울에는 큰 틀이 있고 받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불성은 티 없이 맑은 것인데, 눈으로 확인하니 갖고 싶어 시비가 생겨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혜가 돌이 아니고 하나라고 말합니다. 선정과 지혜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선정이 곧 지혜입니다. 참 선정은 곧 깨달음으로 바로 갔다는 말입니다. <육조단경>에서 말하는

선정은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고 정진했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꽃을 얻으려면 단박에 나무를 열심히 비벼야 합니다. 쉬엄쉬엄 나무를 비벼서는 불꽃을 얻지 못합니다.

조계종은 간화선을 주로 하다 보니, 화두를 드는데 화두가 들지 않으면 선지식한데 화두를 어떻게 들것인지에 대해 물어보아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이러한 질문에 판지생모(板齒生毛)라고 답합니다. 판지때기 이빨에서 털이난다는 말입니다. 화두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해 드리겠지만, 한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8만대장경을 요약해서 진술해 달라고 말입니다. 조주 스님은 ‘내가 지금 마시는 차의 맛도 한 마디로 설명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질타라는 질타라고 보여 집니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레아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운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소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본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대한불교일월출 추명사)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명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